

전국 아파트값 상승 속 전북도 '상대적 강세'

한국부동산원, 1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발표... 전북 매매·전세 모두 상승

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새해 들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지방에서는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으나 전북은 매매·전세 모두 상승하며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수도권은 0.12%, 서울은 0.21% 오르며 전국 상승을 이

끌었고, 지방은 0.01% 상승에 그쳤다. 전세가격 역시 전국 평균 0.08% 상승했으며, 수도권과 세종시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적으로는 실수요가 몰린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서울의 경우 학군지와 역세권,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와 거래가 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서는 하락 지역이 늘어나며 호조세가 지속됐다.

이 같은 전국 흐름 속에서 전북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해 전국 평균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며,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다.

전북 지역 내에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주 덕진구는 0.19% 상승하며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완산구도 0.18% 오르며 동반 상승했다. 남원시 역시 0.19% 상

승하며 전북 내 주요 상승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산시(-0.07%), 익산시(-0.09%), 김제시(-0.03%) 등은 하락해 지역 간 온도 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전세시장에서도 전북은 전국 흐름과 보조를 맞췄다. 전국 전세가격이 0.08% 오른 가운데, 전북은 0.06%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수도권과 세종시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일부 도 지역이 보합 또는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오상근 기자

한파에 농수산물 시장 출렁

채소·과일 가격 '강보합'·소비는 위축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로 전국 농수산물 시장의 수급과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산지 출하량 감소로 일부 품목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 비수기와 한파로 거래가 위축되며 보합 또는 약세를 나타내는 품목도 적지 않다.

대구 지역 소매시장에서 노지 수미

감자는 경남 밀양과 제주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으나, 기온 하락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 통시장은 100g당 466원에 거래되며,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경우 강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배추와 열갈이배추, 시금치 등 잎채소류 역시 한파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대전 도매시장의 양배추는 산지 작황 부진과 반입 물량 감소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며, 열갈이배추는 1kg당 3,160원 선에서 거래되며 설 명절 전까지 강보합세가 예상된다. 다만 광주 지역 시금치는 반입은 꾸준하지만 소비 감소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과일 시장에서는 감귤과 수입 과일의 흐름이 눈에 띈다. 서울 도매시장의 노지 감귤은 외형 신선도 저하로 품질 편차가 확대되며 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다. 만감류 출하가 본격화되면 감귤 수요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체리와 망고 등 수입 과일은 환율과 명절 수요가 변수다. 체리는 비소비철임에도 환율 영향으로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망고는 최근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면 다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시장 역시 기상 여건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 지역 고등어는 한파와 강풍으로 조업이 부진해 가격이 상승, 당분간 강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굴과 전일염은 소비 비수기와 거래 위축으로 보합 또는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법정부 대응단 출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단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 부처가 참여하는 협업 창구다. 기술탈취 대응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부처별 기능을 하나로 묶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반도체 공사현장서 주 52시간 상시 위반 적발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해당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출역 인원 1천248명 가운데 827명(66.3%)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던 건설노동자 1명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조사 과정에서 사망 노동자가 근무 기간 동안 주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포함해 공종별 4개 하청업체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업체별로는 C사가 82.6%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고, A사(74%), D사(58.6%), B사(24.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일 근로수당 등 임금 3천7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하청업체들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태자료 등을 5월 8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 사법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국내 안전기준 '미달'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전동보드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 7종을 대상으로 안전기준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전 제품이 국내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동보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최고속도 25km/h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KC마크를 획득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적용을 받아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의 실제 주행 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이 최고속도 25km/h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가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오상근 기자

'컴포즈커피' 종합만족도 3.97점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 4사 대상 조사 결과 '만족도 1위'

저가형 커피 전문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컴포즈커피'가 종합만족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주문과 결제 등 이용 편의성은 높게 평가된 반면, 제공 혜택과 커피 맛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 4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평균 3.87점(5점 만점)이었다. 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가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메가MGC커피(3.93점), 더벤티(3.86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메뉴 품질과 주문 정확성 등을 포함한 '서비스 신뢰성'이 4.03

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커피 추출의 전문성과 키오스크·자체 앱 관리 수준 등을 평가한 '운영 전문성'은 3.7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핵심 서비스 항목 가운데서는 '주문·결제·이용 편의성'이 4.2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가격만족도 역시 4.08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제공 혜택'(3.74점)과 '메뉴 품질'(3.80점)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매장별 커피 품질 표준화와 키오스크·앱 주문 단계 간소화, 시스템 오류 최소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정읍 JB아우름캠퍼스에서 제54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전북은행 노조, 제54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정인호)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정읍 JB아우름캠퍼스에서 제54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정인호 위원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대의원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권기봉 의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윤석구 위원장, 당선인, 금융산업노조 각 지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춘원 전북은행장도 자리를 함께하며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대의원대회 첫날에는 노조 53년차 활동 및 결산 보고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의견서 채택, 54년차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금융산업노조 파견 대의원 선출 등 주요 안건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처리됐다. /오상근 기자

이튿날에는 정인호 위원장과 의회 소동 콘서트를 비롯해 2026년 경영전략 발표, 은행장과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돼 노사 간 상호 이해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노총과 전국금융산업노조, 전북은행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도 이어졌다.

한국노총위원장 표창은 원주산단지점 양이름 차장과 경원동지점 윤정호 과장이 수상했으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표창은 외환사범부 강미선 과장, 조촌디오션지점 김민 과장, 신용분 석실 전지원 대리에게 각각 수여됐다. 이밖에도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상과 전북은행 모범조합원 표창이 함께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